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예배>

제목 : 세상이라는 파도타기 성경: 신명기 32장 8~12절

Tag:

8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 여호와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32:8-12)

8절:-인종을 나누신 하나님, 경계를 나누신 하나님; 전체주의 국가를 파쇄하심.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움->결국 민족을 중심으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전쟁을 최소화 하는 길. 버젓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선이 됨.

-나라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심.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심.

-신대륙의 발견으로 대항해 시대 개막. 식민지 쟁탈전. 근대화가 선이 됨.

-결국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계급이 형성됨. 계급정리에 합리적 가치를 준 것이 기독교. (기타 종교는 합리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함)

-민족자결주의가 선이 됨.

9절;선택과 집중-이스라엘을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심.

-야콥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 됨.

-대한민국이 그의 택하신 기업이 되어야 함.

-민족 단위로 뭉치게 하심. 20세기 들어 세계화가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다시금 민족주의로 돌아섬.

-이유는? 중국 때문.

-미국이 중국을 믿고, 세계화를 추진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악랄하게 패권을 노림.

-결과적으로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함.
(농민공-공산당만 배 불림.)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뛰어들. 이슬람 극렬주의자들과의 싸움.
이제는 한단계 종식됨. 그러나 언제 다시 터질지모름.

-미국과 중국

(왜 언론이 매일 트럼프를 사소한 것으로 폄훼할까?)

(왜 김정은은 다시금 잠적했을까?)

(김정은은 거지가 되었다. 김정은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이제 중국이 거지가 될 차례. 중국의 돈이 묶일 가능성이 커짐.

-이제 전쟁에서는 달러가 무기.

-결국 달러의 양을 조절하는 연방준비기금이 핵심권력자. 수장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대통령도 금융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음.

-결국 이 금융을 통한 숫자놀음에 세계는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만약 이들의 실수로 달러의 가치가 변하면 미 연준의 존재도 사라지게 됨. 이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있음.

-이제 이들은 미국 사법부를 움직여 세계를 다스리려고 함.

(왜 현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풀어낼까? - 달러화 되기 힘든 지역화폐를 통해서 살림살이를 가동 중. 한국이라는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만 할 수 있음. -온라인, 사행성, 사치품, 금융상품, 공과금, 지역상권, 유통기한이 있는 화폐. 해외직구 막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장악함. 완전 배급. 자기들은 세금먹는 하마가 됨. 정부의 통제 가능한 돈. 세계화에 위배되는 화폐.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완전 자급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빛을 보게 됨. 이 또한 큰손들의 먹이일 뿐. 결국 큰손들은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자금세탁이 된 돈으로 자신들은 기존의 금융상품을 사들일 것임. 결국 태양빛이 달리가 되어 최상위 포식자들의 몫이 됨. 그들이 한국식 공산당이 될 것임.)

(이처럼 돈을 살포해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 아닌가?
지역화폐+달러의 교집합.

-이념 전쟁의 유익은? 이념전쟁을 이용하는 방법은?

-북한의 특별한 기회

- 코로나로 경건한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짐.
- 재택근무, 재택 공부 온라인의 기능이 높아짐.
- 직장이나 학교는 간헐적으로. 소규모로. 팀 단위로.
- 소그룹 활성화.
- 기존 질서의 붕괴 (금융, 석유산업, 학교, 교육, 대형마켓, 등,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던 가치들의 가치가 변함)
- 의료 산업의 고공행진
- 인싸의 시대는 가고 아싸의 시대가 열리는가?
- 비 대면 일대일 접촉 시대가 열린다.
- 집단은 결코 개방적이지 못할 것이다. 민증을 까야 일원이 되는 시대.

-교회는 윤리의식을 현실화하라.